

광주복지재단, 감사·조사에 사면초가

광주복지재단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 이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까지 '쌍끌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5일까지 이틀간 복지재단 감사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본격적인 특정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최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규정 위반 의혹, 매점 불법 전대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광주시 감사위-시의회, '쌍끌이 조사' 예고 6~12일 특정감사·14일 행정사무조사 발동

시의회는 지난달 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무처장 채용 규정 위반 의혹과 매점 불법 운영, 감사자료 허위 제출, 고위직 감질 논란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 발의로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7일까

지 8명 안팎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을 선임한 뒤 10일까지 세부 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4일 4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계획이다. 행정 조사는 통상 50일 남짓 진행된다. 조사권 발의는 제때 의회 출범 후 이변이 처음이다.

시의회 출범 후 조사권이 발동된 것은 ▲2006년 광주교육청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 비리 ▲2011년 광주교육청 인사계약 비위 의혹 ▲2012년 광주시 한미합작투자법인 갭코(GAMCO) 사건 등 모두 3건이다.

이에 복지재단 측은 "행정조사 발의에 대해 아픈 마음으로 환영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일부 과장되고 왜곡된 점은 바로 잡아 참정된 조직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취업청탁 의혹 운장현 전 광주시장 행방 관심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사기 피해를 본 운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범 자녀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등의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오리무중'인 그의 행방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4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윤 전 시장이 호주에 있다는 말이 나온다.

또 다른 일각에선 윤 전 시장이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에 체류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네팔 다무와 마을에서 열린 '네팔 광진료소 개소 2주년 기념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봉사활동에 함께한 일행 대다수가 지난달 21일 귀국했는데도 윤 전 시장은 네팔 카트만두에 머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귀국일을 특정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자신에게 돈을 가로챈 A(49·여)씨가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달 23일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고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해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법리 검토와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기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은 윤 전 시장을 피해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오는 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윤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2월19일)을 피하려고 잠적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핸들러와 훈련하는 인명구조견 4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구지면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 훈련장에서 2018년도 인명구조견 현장배치 출정식을 마친 인명구조견이 핸들러와 장애물 훈련을 하고 있다.

"울겨울 광주·전남, 황사는 가능성 낮으나 주의 필요"

황사 이동·강한 편서풍·비구름대 조건 동시충족 어려워

올 겨울 광주와 전남지역에 황사 눈이 내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 겨울철 황사가 잦아지고 있어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기상청·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번 겨울 동안 광주와 전남에 황사 먼지가 섞인 눈이 내릴 기상학적 확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황사 눈·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중국 중부내륙과 내몽골 등 황사발원지 주변에 저기압 영향으로 형성된 상승기류가 타고 황사 먼지가 성층부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후 편서풍을 따라 한반도 지역까지 이동한 황사 먼지가 비구름대와 만나 입자끼리 결합해 떨어지면 황사비가 내린다. 만약 기온이 낮아 결빙 중인 대

기 중 수증기가 황사 먼지와 결합하면 황사눈이 내린다.

광주시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은 최근 중국 내 황사가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매우 강한 편서풍이 불어야만 황사 영향권에 든다"면서 "눈·비구름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때에 맞춰 황사가 울려오는 낮은 확률"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상청은 한랭전선 남하 영향으로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광주시상청은 최근 황사가 발원한 지역에 고기압이 형성돼 한반도 이동 가능성이 낮은 점과 서풍이 강하지 않다는 점 등을 토대로, 오는 8일까지 내리는 눈에 황사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춘정 기자

'하차 시비' 택시 운행방해 3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택시기사와 하차 장소를 놓고 승강이를 한 뒤 택시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3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48)씨가 모는 택시를 5분 동안 몸으로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지하주차장 내 입주민 출입문 앞에서 내려달라'며 지하주차장 진입을 꺼리는 B씨와 승강이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요구했던 장소에 내린 직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하는 택시를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둑 의심에 카페서 행패 4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 B(26)씨를 향해 때릴 듯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B씨가 '이틀 전 판매용 생수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인 신고로 확인돼 B씨에게 사과까지 받았지만, 술을 마시다보니 또다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공구로 현관문 부수고 금품 훔친 40대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공구를 이용해 주택을 뚫은 혐의(절도)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주택 현관문을 절단기로 부수고 침입, 귀금속을 가져가는 등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주택 5곳에서 귀금속과 현금 등 6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김씨는 생활비·유류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대문이 열려 있거나 창고가 있는 집을 불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입 직후에는 창고·마당에 보관 중인 공구를 이용해 현관문을 부수고 훔쳐갔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모텔서 50대 여성 손 묶여 숨진 채 발견

광주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10분께 광주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A(57·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서부경찰서 실종팀 형사들이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불에 싸인 채 양손이 테이프에 묶여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50분께 이 모텔을 찾았으며,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원룸 주변 참나무 21그루 '썩둑' 50대 달미

조방권 등 재산권 침해로 원룸 주변에 심어진 참나무 수십여 그루를 임의로 잘라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사유지에 심어진 수십 년생 참나무 21그루를 훼손한 혐의(재산손괴)로 A(5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음성군 음성을 읍내리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변에 심어진 참나무를 허가받지 않고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참나무 가지가 원룸 창문을 가려 조방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유주 B(60)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벌목업자 C씨를 동원해 잘라냈다. 벌목이 잘린 참나무는 인근 숲 공장에서 발견됐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